

짬통더위에 채소가격 오름세

일부 채소 작황 좋지 않아 고랭지 배추·깐마늘·시금치 등 가격 폭등

연일 지속되는 짬통더위로 인해 채소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무더운 날씨 탓에 일부 채소의 경우 작황이 좋지 않아 추석을 앞두고 주부들의 '깡바구니 물가'에도 비상이 걸렸다.

2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주요 농산물 주간 거래 동향(8.9~8.16)에 따르면 고랭지 배추 1포기당 도매가격은 5,063원이다. 전 주인 12일 4,063원 보다 무려 20%가 급등한 것이다. 평년 동기 2,699원 보다 100% 높은 수준이다.

이는 추산지 작황부진과 시장내 반입량이 감소해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고 앞으로도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깐마늘은 소매 가격이 더 올랐다.

깐마늘은 kg/당 1만477원으로 조사됐고 지난 9일 1만 265원, 12일 1만 396원 등 꾸준히 상승했다.

깐마늘 역시 평년 같은 기간 7,418원 보다 33%가 올랐다.

저장되고 풀량 출하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보이며 평년 대비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시금치(1kg당)는 두배 이상 상승했다.

상품은 평균 7,400원으로 지난달 평균 4,490원보다 급등했다.

중품도 이달 평균 6,133원으로 조사돼 지난달 3,905원 평균보다 높았다.

파는 대파보다 쪽파 가격이 더 상승했다. 대파(1kg당) 상품은 이달 평균 2,216원으로 지난달 2,670원으로 보합세를 유지했지만 쪽파(1kg당) 상품은

이달 평균 6,162원으로 지난달 5,560원 보다 올랐다.

깻잎(220g)도 상승했다.

깻잎 상품은 3,438원으로 지난달 3,395원보다 올랐고 중품 역시 2,000원 대로 지난달 1,876원보다 상승했다.

과일가격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추석 대표 과일인 사과 배의 경우 태풍이 없어 풍작이 전망됐지만 폭염과 함께 열대야로 인해 생육에 지장,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이 우세하다.

업계 관계자는 "채소와 과일의 경우 추석 전 위기 단계에 따라 도매 시장 방출이 추진될 여지가 많다. 추석 일주일 전까지 기비가 실제 가격 동향을 알 수 있지만, 무더위가 지속된다면 가격 상승은 불가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광영 기자

전주 남부시장, 야외 상영장 운영

내달 1일~4일 행사 진행

전주남부시장에서 오는 9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와 함께 하는 '2016 FALLing in JEONJU' 행사가 진행된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 따르면 남부시장의 다양한 문화예술체험을 위해 야외 상영장을 운영한다.

전주 남부시장 청년회관을 실내 영화 세트장으로 구성하고 하늘정원은 야외 상영장으로 꾸몄다.

9월 1일 목요일에는 영화 '노마: 뉴 노르딕 퀴진의 비밀'이 상영되며, 영화감상과 함께 체험이

벤트로 남부시장 청년몰 카페일가게인 '차가운새벽'의 카페일 아이스크림 시연과 카페일 이야기 강연이 함께 진행된다.

9월 2일 금요일에는 영화 '심야식당'이 상영되며, 청년몰 일본 가정식 가게인 '백수의찬'에서 음식 시연과 강연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3일에는 영화 '아메리칸 셰프' 상영과 청년 '커피트럭' 김현두의 커피강연을 포함해 방문하는 관객들이 참여 할 수 있는 이벤트가 진행 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경제통상진흥원 글로벌사업단(063-717-1324)에 문의하면 된다. /신광영 기자

장수 용광 삼거리 인근 급커브 구간 개선 착수

사고위험이 높았던 국도 26호선 장수 용광 삼거리 인근 급커브 구간이 개선된다.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소장 장복수)에 따르면 국도 26호선 장수 용광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를 다음 달에 착공한다.

용광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는 장수군 천천면 용광리 용광삼거리 인근 급커브 구간 0.36km의 선형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급커브로 인해 시야확보가 어렵고 겨울철 잦은 결빙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지역주민과 운전자들로부터 개선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사업은 곡선구간의 산을 깎아 급커브 구간의 선형을 개선하고 시선유도봉 및 갈매기표지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남원국토사무소 장복수 소장은 "총 4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오는 2018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이 마무리되면 이 구간은 원활한 시야확보가 가능해져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나타나 안전한 도로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광영 기자

“어린이에게 인기만점 닭요리 함께 해요”

하림, 어린이와 함께하는 쿠킹클래스 성료

닭고기 전문기업 (주)하림(대표이사 이문용)이 “지난 19일 서울 대현동의 요리스튜디오에서 어린이와 함께 하는 쿠킹클래스를 열었다. 유난히 더위에 시달린 여름방학을 의미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특별히 하림 소비자봉사단 '피오봉사단 3기' 가족을 초청해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늘 야외에서 활동하다 간만에 실내에서 요리를 하니 모두들 새롭다는 반응이었다. 게다가 닭고기 구이 별피자, 간풍차 등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인기 외식 메뉴를 활용한 레시피까지 호응이 더 높았다.

2014년에 처음 결성된 하림 피오봉사단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야생동물 및 자연 보호활동을 펼치고 나눔 정신을 실천하는 가족 봉사단이다. 지난 4월 선발전 하림 피오봉사단 3기는 5월에 전북 정읍에서 자연하천 정화활동에 참여한 데 이어 6월에는 서울대공원에서 숲체험과 더불어 쓰레기 줍기, 잡초 뽑기 등에 나섰다.

◆ 닭고기 구이 별피자
재료: 하림 자연실록 닭다리살, 허브소금, 후추, 맛술, 피자소스 3

양파, 옥수수, 소시지를포장한 후 피자치즈를 뿌린다. 구워놓은 닭다리살과 방울토마토, 블랙올리브를 올려 토핑한다. 오븐에 180도로 15~18분간 구워 완성한다.

◆ 간풍차
재료: 하림 자연실록 닭정육, 통마늘, 빨강 피망, 초록 피망, 양파, 닭 양념: 구운소금, 순후추, 전분 4큰술, 카놀리유 2큰술, 간풍 소스: 양조간장 2큰술, 황설탕 2큰술, 사과식초 3큰술, 물 2큰술

만드는 방법: 닭고기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준비한다. 마늘, 피망, 양파는 작게 잘라 준비한다. 분량의 양념을 만들어 준비한다. 잘라놓은 닭고기는 소금, 후추, 전분, 카놀리유에 버무려 오븐에 180도에서 13~15분간 구워준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마늘을 넣어 볶아준다. 양념이 졸아들면, 닭고기를 넣고 버무려 완성한다.

하림 공식 블로그(http://blog.naver.com/harimarket)를 방문하면 간편하고 맛있는 닭요리 레시피를 더 많이 만나볼 수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전직원대상 2016 을지연습 돌입

전북농협-농협은행 전북본부

전북농협(본부장 김태호)과 NH농협은행 전북영업본부(본부장 최용구)가 22일 전직원 대상 비상소집훈련을 시작으로 '2016 을지연습'에 돌입했다.

전북농협은 전시에 농협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전사전환 절차훈련을 통해 국민생활안전에 필요한 농축산물의 동원능력 배양과 안정적

인 군부식 공급에 목적을 두고 있다.

연습기간 중 안전대책을 우선 강구하고 안보교육, 양곡수급 및 비상식량 보급연습, 화재진압훈련, 안보영양물 시청 등 참여형 체험행사를 실시한다.

또한 전직원의 국가안보 의식 제정립을 위해 우석대학교 군사학과 남궁승필 교수의 '안보위기 무엇이 대안인가'라는 안보교육 특강을 듣는다. /고민형 기자

백화점, 국산과일 '비싸'

오픈마켓보다 사과 4.6배 자두 5배 높은 가격에 판매

소비자들은 사과·참외 등 국산과일을 살 때 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을 가장 많이 이용하지만 가격은 온라인 채널이 훨씬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유통채널 중에서는 백화점이 가장 비쌌고 전통시장이 가장 저렴했다. 모든 유통채널 중 가장 가격이 낮은 채널은 오픈마켓이었다.

여성소비자연합은 22일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74곳을 대상으로 지난 6월16~24일 실시한 과일가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사과, 참외, 수박, 메론, 블루베리, 천도복숭아, 자두 등 7종의 과일 중 수박을 제외한 모든 과일이 온라인몰에서 더 저렴했다. 특히 사과의 경우 백화점이 오픈마켓보다 4.6배, 자두는 백화점이 오픈마켓보다 5배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다.

여성소비자연합에 따르면 오프라

인 평균가는 1kg당 5368원, 온라인 평균가는 4052원으로, 오프라인이 온라인에 비해 1300원 가량 저렴했다.

천도복숭아의 경우 오프라인에서는 1kg당 평균 8180원에 판매되고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3812원에 팔리고 있었다.

자두 역시 오프라인에서는 1kg당 5680원에 판매됐지만 온라인에서는 568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오픈마켓은 크기가 작은 과일을 대량 구매하는 경우에 저렴한 가격으로 과일을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여성소비자연합이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과일소비 실태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과일을 주로 구매하는 장소는 대형마트(42.8%) > 전통시장(18.0%) > SS(9.4%) 순이었다.

/뉴시스

전북은행 장학문화재단

고교생 대상 리더십 스쿨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이사장 김영구)은 전북은행 본점에서 도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8회 JB Self Leadership School'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고등학생들에게 자기주도적 생활습관과 셀프리더십을 함양해 책임감 있고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학생 스스로 공부를 비롯해 자기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과 시간설계와 학습전략수립을 이원화하여 실행력을 극대화 시키는 짜임새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돼 학생들이 크게 호응했다.

염혜원 학생(상산고 1학년)은 "기록관리를 통해 자기주도적인 생활습관을 형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꿈 리스트를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s.or.kr *전자우편 : jvs@hanmail.net

